

# 노자사상중 유무상생·상반상성의 관점에서 본 전통공간의 특성

북경 이화원(頤和園)을 중심으로

##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space from being and non-being rely on each other in Taoism

In priority on the Sumer Palace

허 롱 Xu Long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실내디자인학과 석사과정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has highly artistic quality and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of space composition.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one of the reason for this great cultural achievement is Chinese profound thoughts. The one of the greatest Chinese philosopher Lao-tzu satisfies covert need of other people based on his main idea 'flexibility'. There are many magnificent thought in Taoism such as 'being and non-being create each other' and 'the inactivity nature' etc. Among these ideas, this study figured out spatial characteristics of 'Mixed', 'Constantly changing' and 'Empty'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being and non-being rely on each other'. Furthermore, intensively studying on Beijing Summer Palace, this study examined how spatial characteristic of 'being and non-being rely on each other' works in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to satisfy personal covert need.

노자, 중국 전통공간, 유무상생, 상반상성

Lao-tzu, Chinese Traditional Space, Being and non-being, Being opposite and complementary to each other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중국 전통건축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높은 예술성과 독특한 공간구성을 갖고 있다. 중국 전통건축은 인도, 아랍과 함께 동방의 3대 건축에 속한다. 그중에서 중국 전통건축은 역사가 가장 길고 영향을 미친 지역이 가장 넓다. 이처럼 찬란한 문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넓고 심오한 중국사상을 꼽을 수 있다. 노자와 공자의 사상은 중국의 본토 사상으로 같은 시대에 등장하여 중국인들에게 세세대대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전해져 불교와 함께 동양의 3대 사상으로 남아 있다. 공자의 사상은 위계적이어서 통치자의 권력을 보호하는데 유익하나 개인에 대한 구속력이 강하다. 반면 노자의 사상은 유연함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내적욕구를 만족시킨다. 그 영향으로 인해 중국 전통건축의 외관은 장엄하고 질서 있는 면을 보여주지만 내부는 시처럼 부드러운 면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인들의 외유내도(外遊內道)의 가치관을 잘 보여준다.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공자보다 노자의 사상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도 노자사상을 가장 좋은

건축이론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노자사상에는 유무상생(有無相生), 무위자연(無爲自然) 등 여러 사상들이 있다. 그중 유무상생·상반상성(相反相成)은 노자사상의 가장 상위개념인 도(道)의 본질을 다룬 사상으로서 우주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한다. 그리하여 유무상생·상반상성이 노자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자사상 중 유무상생·상반상성 사상의 개념과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 사례조사를 진행하여 개인의 내적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무상생·상반상성의 공간적 특성들이 중국 전통공간을 대표하는 이화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유무상생·상반상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유무상생·상반상성의 공간적 특성을 연구한다. 북경 이화원을 중심으로 사례조사 하여 앞에서 도출한 유무상생·상반상성의 공간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한다.

분석사례인 북경 이화원을 선택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중국 전통공간에서 궁궐, 주택과 같은 공간은 공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위계적인 구조이다. 반면 원림공간은 노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유연하고 사람들의

내적욕구를 만족시킨다. 청나라 황가 원림 이화원은 고대 원림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원림이고 중국의 마지막 황가원림으로 사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연구하였다.

## 2. 노자사상의 개념과 공간적 특성

### 2.1. 유무상생·상반상성의 개념

#### (1) 유무상생

도덕경 2장에서 노자는 “온 세상 사람이 모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무엇을 아름답다고 여기면 그와 동시에 추한 것도 생긴다. 온 세상 사람이 모두 좋은 것을 좋다고 여기지만, 무엇을 좋다고 여기면 그와 동시에 좋지 못한 것도 생긴다.”<sup>1)</sup>라고 하면서 유무상생의 사상을 설명하였다. 이강수는 유무상생의 사상을 “사물들이 각각 그 대립자를 지니고 있고, 그러한 대립적 존재자들은 서로 상대방을 자기 존재 성립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 있음이 없으면 없음도 있을 수 없고, 긴 것이 없으면 짧은 것도 있을 수 없으며, 높은 것이 없으면 낮은 것도 있을 수 없고, 앞이 없으면 뒤도 있을 수 없다”<sup>2)</sup>고 해석하였다.

#### (2) 상반상성

노자는 또 이런 반대되는 것을 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만물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sup>3)</sup>라고 하였다. 이처럼 “보기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서로 의지하고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상반상성이라 한다.”<sup>4)</sup> 상반상성의 개념을 여러 학자들이 응용하였는데 마오쩌둥(毛澤東)은 모순론에서 상반상성의 개념으로 모순의 본질을 설명하였다. 그는 “‘상반(相反)’은 두 모순 사이의 서로 배척함과 투쟁을 의미하고 상성(相成)은 어떤 조건하에 두 모순은 서로 결합하고 통일된다.”<sup>5)</sup>고 하였다.

#### (3) 유(有)와 무(無)의 상반상성적인 관계

도덕경 11장에서는 유와 무의 상반상성적인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였다. “바퀴통에 서른 개의 바퀴살이 꽂혀 있다. 바퀴통이 비어 있지 않다면 바퀴살을 꽂을 수 없다. 바퀴통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바퀴살을 꽂아 수레로 쓸 수 있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든다. 하지만 그릇의

내부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릇으로 쓸 수 있다. 문과 창을 내어 방을 만든다. 하지만 방의 내부가 비어 있기 때문에 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없음과 비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물의 쓰임새가 생긴다.”<sup>6)</sup> 여기서 노자는 유보다 무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유의 작용만 보지 말고 유와 무의 상반상성의 관계를 보라고 설명하였다.

노자의 이런 철학은 건축공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건축공간에서 무형의 공간과 벽 사이의 상반상성의 관계를 보면 벽이 없으면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벽은 공간이 생기도록 돕고, 공간은 벽의 작용을 하도록 돕는다.

### 2.2. 혼재(混在)적 특성

앞서 유무상생에서 말한바와 같이 유는 무를 살려주고, 무는 유를 살려준다. 이들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지만 서로 꼬여 있어서 노자는 황홀(恍惚)이라고 표현하였다. 도덕경 21장에서 “도(道)라는 것은 오로지 황홀하다. 황홀한데도 그 가운데 형상이 있으며, 황홀한데도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다. 아득하고 어두운데도 그 가운데 정기가 있다.”<sup>7)</sup>라고 하였다.

황홀이라는 것을 공간적인 측면에서 경계가 흐릿하거나 분명하지 않아 공간과 환경, 공간과 공간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 부동한 건축양식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부동한 건축종류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 등으로



<그림 1> 호심정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간과 환경의 혼재의 경우 항주(杭州) 서호(西湖)에 있는 호심정(湖心亭)의 외형과 주위 환경의 혼재, 그리고 내부공간이 외부환경으로 연장되어 하나로 느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표 2> 혼재적 특성

특성	해석
공간과 환경	건축물의 외형과 자연의 조화
	개폐 공간으로 인해 내부공간이 외부환경으로 연장되어 하나로 느껴짐
공간과 공간	두 공간사이의 경계가 흐릿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느껴짐
건축양식	서로 다른 양식이 하나의 건축물에 표현
건축종류	부동한 건축종류들이 결합하는 것

### 2.3. 항변(恒變)적 특성

앞서 반대되는 것이 서로 의지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1) 노자, 정창영 역, 도덕경, 초판, 시공사, 서울, 2003, p.14  
天下皆知美之爲美，斯惡已；皆知善之爲善，斯不善已。  
2) 이강수, 노자와 장자 무위와 소요의 철학, 2판, 길 출판사, 1997, pp.45~46  
3) 이강수, 앞의 책, p.46  
4) Baidu사전, <http://dict.baidu.com/>  
5) 마오쩌둥, 毛澤東選集, 2판, 인민출판사, 1991, p.134

6) 노자, 앞의 책, p.36 三十輻共壹轂，當其無，有車之用。埴埴以爲器，當其無，有器之用。鑿戶牖以爲室，當其無，有室之用。故有之以爲利，無之以爲用。  
7) 노자, 정창영 역, 도덕경, 초판, 시공사, 서울, 2003, p.62 道之爲物，惟恍惟惚。惚兮恍兮，其中有象；恍兮惚兮，其中有物。窈兮冥兮，其中有精。

것이 상반상성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특성 때문에 도는 정지하지 않고 항상 운동하게 된다. 그리하여 계속 변화하는 속에 있게 된다. 공간적 측면에서 이런 변화의 요인을 동선의 변화, 시간의 변화, 자연의 변화, 심상의 변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공간이 변화한다. 동선에 따라 변화하는 사례로 이화원 장랑長廊에서 장랑을 따라 걸어가면 계속 부동한 풍경이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림 2> 이화원 장랑

<표 3> 향변적 특성

특성	해석
동선변화	사람의 동선에 따라 변화하는 형상
시간변화	인간이 지은 건물은 변화하지 않지만 이것이 시간에 따라 자연과 조화되어 하나의 형상으로 되었을 때 변화하는 형상
자연변화	공간이 자연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
심상변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

#### 2.4. 비움無적 특성

노자는 유보다 무를 중시한다. 도덕경 5장에서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 같다. 속이 비었으면서도 생명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많이 나온다.”<sup>8)</sup>라고 한 것과 같이 비움이 있음으로써 생명력이 있게 된다. 그것은 비움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경복각

공간적 측면에서 공간이 비어 있음으로 하여 그 공간은 어떠한 용도나 특성에 속박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빈 공간은 생명력이 있고 지루하지 않으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비움의 다른 표현은 구조물의 복합기능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공간의 비움을 통하여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맑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화원 경복각景福閣의 앞 절반 공간은 기둥만 있는 비움의 공간이다. 이 비움 공간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표 4> 비움적 특성

특성	해석
비움	생명력이 있고 지루하지 않으며 다양하게 사용
	비움 공간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
	구조물의 복합기능
	공간의 비움을 통하여 시야를 확보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맑게 하는 용도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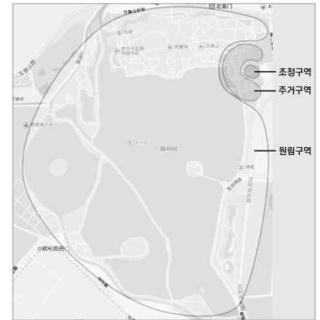
8) 노자, 정창영 역, 도덕경, 초판, 시공사, 서울, 2003, p.22 天地之間, 其猶橐籥乎, 虛而不屈, 動而愈出。

### 3. 북경 이화원 사례연구

#### 3.1. 이화원 역사 및 공간구성

청나라 황가 원림 이화원은 고대 원림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원림이자 중국의 마지막 황가원림이다. 이화원의 전신인 청의원淸漪園은 건륭 15년에 만들어졌고 1860년에 원명원圓明園과 함께 영국·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파괴되었는데 당시의 실질적 집권자인 서태후西太后가 해군군비를 전용하여 수리한 후 이름을 이화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 후 서태후는 이화원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정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화원 전체 면적은 약 2,900,000㎡ 정도이며, 자연적인 산과 물을 가진 원림으로 황가원림으로서 군왕의 통치력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화원에는 만수산 동쪽 자락에 위치한 궁궐 건축, 만수산 앞뒤로 이룬 사찰건축, 뒷산 호수구역에 있는 강남민속건축, 뒷산



<그림 4> 북경 이화원 지도

중양에 있는 티베트 라마교건축, 곤명호昆明湖 서북쪽에 위치한 서양의 기선을 모방한 석방石舫 등 다양한 건축양식이 있는데 이는 “하늘아래의 땅은 왕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다.”<sup>9)</sup>는 관념을 잘 표현하였다. 이화원은 사용에 따라 조정朝政구역, 주거구역, 원림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sup>10)</sup> 조정구역과 주거구역은 이화원 동쪽에 위치하였고 전통 궁궐의 판본에 따라 앞부분은 조정구역, 뒷부분은 주거구역으로 나뉘었으며 장엄하고 엄숙한 위계적 질서에 의한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원림구역은 루樓, 각閣, 정亭, 랑廳, 석방石舫, 사寺, 교橋 등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황족의 휴양, 연회잔치, 예불禮佛 등 휴식위주의 용도로 사용되어 개인적인 욕구를 만족시켰다. 따라서 원림구역은 자연과 조화되어 자유로운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이는 노자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 이화원 원림공간에 집중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 3.2. 노자사상의 공간특성에 의한 이화원

앞서 논한 노자사상의 공간적 특성을 통하여 이화원 원림구역에서 나타난 표현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9) 普天之下, 莫非王土. 출처:<詩經·小雅·谷風之什·北山>

10) 이화원 공식사이트, <http://www.summerpalace-china.com/>

<표 4> 노자사상의 공간적 특성 및 표현

특성	이름	이미지	해석
·공간과 환경 ·공간과 공간 ·건축양식 ·건축종류	덕화루 德和樓		덕화루(공연공간)와 주변관람공간 다른 공간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간
	심운정 尋雲亭		건축물 외형과 산의 혼재, 내부공간과 외부환경이 연장되어 하나의 느낌
	옥대교 玉帶橋		다리와 물속 그림자가 혼재되어 타원형을 이룸
	회정 醉亭		두개의 육각정자 한 번으로 결합, 한 건축물이지만 두개의 공간으로 느낌
	석방 石舫		서양 기선의 형태, 중국 차경수법을 적용하여 동서양 건축양식의 혼재
	교정 橋亭		정자와 다리의 혼합으로 다리를 건너는 것과 정자에 정지하는 행위의 혼재
·동선변화 ·시간변화 ·자연변화 ·심상변화	장랑 長廊		장랑 동선에 따라 펼쳐지는 다양한 풍경-채색화, 산, 호수, 건물 등
	소주가 蘇州街		계절의 변화에 따라 여름철 뱃놀이, 겨울철 썰매놀이
	지춘정 知春亭		봄철 감지하여 싹 트는 나무로 인한 심상의 변화로 공간을 새롭게 느낌
	십칠궁교 十七拱橋		십칠궁교의 동선에 따라 544마리 각기 다른 돌사자의 형태
	음녹정 飲綠亭		계절변화 따라 연꽃들이 피고 지는 것을 통해 심상변화를 이르게 공간변화를 느낌
	반랑 半廊		반랑의 동선에 따라 창문모양 변화한 것과 차경의 변화
·빈 공간 ·다양한 가능성 ·복합기능 ·시야 확보 ·마음비움	장랑 長廊		난간과 의자의 복합기능으로 빈 공간이 증가하여 비움을 느낌
	경복각 景福閣		건물절반 비움으로써 다용도 사용가능
	의지운재 意遲雲在		기둥위주 공간으로 내부를 비움으로써 마음의 비움을 느낌
	중취정 重翠亭		기둥위주 공간으로 내부를 비움으로써 다용도 사용가능
	관생의 觀生意		기둥위주 공간으로 내부를 비움으로써 다용도 사용가능
	괘여정 廓如亭		내,외부를 비움으로써 시야를 확보하고 마음의 비움을 느낌

## 4. 결론

유무상생·상반상성은 유와 무가 동시에 존재하고 서로 반대되지만 존재의 전제로 보고 서로 꼬여있으면서 상호 작용하며 유의 존재만 보지 말고 무의 작용을 중요시하는 사상이다. 이에 근거하여 공간적 특성을 혼재, 항변, 비움으로 나눌 수 있다. 혼재는 흐릿한 경계로 인한 환경과 공간, 공간과 공간의 혼재 그리고 건축양식, 건축종류의 혼재 등이 있다. 항변은 동선, 시간, 자연, 심상의 변화로 인한 공간의 변화를 말한다. 비움은 빈 공간으로 인한 공간의 다양한 가능성, 시야의 확보, 마음의 비움 등이 있다. 이런 특성들을 이화원의 루臺, 各閣, 正亭, 梁廊, 石舫, 石舫, 橋, 街 등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자사상의 유무상생·상반상성의 개념과 사례조사를 통하여 공간적 특성을 찾으려 하였으나, 사례연구가 이화원에만 국한된 한계를 밝힌다. 중국의 북방 원림은 황가원림과 사림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남방 원림과 지역적, 정치적 차이를 갖고 있다.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고 보다 심도 있는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노자 사상의 중국 전통공간 특성을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노자, 정창영 역, 도덕경, 초판, 시공사, 서울, 2003
2. 이강수, 노자와 장자 무위와 소오의 철학, 2판, 길 출판사, 강릉, 1997
3. Lu Bingjie, Cai Yanxin, 김형호 역, 중국문화7건축예술, 초판, 대가, 서울, 2008
4. Chen Guying, 老子評傳, 초판, 남경대학출판사, 남경, 2001
5. 마오쩌둥, 毛澤東選集, 2판, 인민출판사, 북경, 1991
6. 김지은, 노자의 공간 사상을 통한 전통 공간 연구-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을 중심으로, Journal of Oriental Culture&Design Vol.2 No.2, 2010
7. 배영길, 老子『無』概念의 生命性 건축공간개념의 실천적 적용, 서강대 석사논문, 2002
8. Zhang Weigang, 老子有无論對中國建築空間理論的影響, Journal of Tibet Nationalities Institute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s) Vol.25 No.3, 2004
9. Jin Zisong, Qin Luofeng, Yu Chunliu, 論建築中的虛空間-虛實相生 相反相成, Architecture and Culture No.94 2012 January, ISSN:1672-4909, 世界圖書出版社, 북경, 2012